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군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시 9편 2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석관 115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주일엔 설교태일 보급중지 온전한 주일성수위한 변화

교회는 4월 첫주부터 그동안 보급되어
왔던 설교태일 및 성경, 찬송가, 기타 설교
집 등을 주일에는 일체 중지하기로 결정했
다.

주일성수 차원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물
고온 태일보급은 일종의 금전거래, 혹은 상
행위의 우려가 있어 그동안 교회학교 학생
들의 교육적 측면이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
키는 일들에 항상 저해요소로 등장된바가
있었다.

그런 까닭에 편의상 보급가격으로 판매
되어 왔던 주일설교 태일은 앞으로 주일엔
보급하거나 판매하는 일 등을 절대로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와 발맞추어
본교회 장로회는 주일에 들어오는 음식물
(떡, 김밥, 과일 등)도 출선수범하여 중지하
기로 했으며, 교회가 마련한 만나식당에서
의 식사만(국수류)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교회학교, 남·여전도회, 교구
위원회, 기타 각기관들이 간식으로 마련된
다과와 음식도 주일엔 들어오지 못하도록
권유하고, 꼭 필요한 경우 전일 토요일에
모두 준비하여 들어오도록 사전교육을 통
해 시행토록 했다.

그리고 주일엔 각자 도시락 싸오기 운동
을 전개하여 성도간의 교제목을 넓히고 하
나님 기뻐하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미덕을 실
천키로 권장했다.

활짝열린 도서관 중학생 이상 열람

충현도서관(관장/김원진장로)이 소석관
5층에서 선교관 2층으로 이전하고, 열람,
대출 등의 도서관 이용안내를 하고 있다.

현재 충현도서관에는 도서 1만권, 양서
2천권, 계 1만2천여권이 소장되어 있으며,
신앙성숙에 도움이 될 도서들이 구비되어
있다.

그뿐만아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열람실은 중등부
이상, 도서의 대출은 대학부 이상으로 제한
되어 있다.

열람시간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6시
까지 (월요일은 휴관), 주일에는 오전9시부
터 오후6시30분까지이다.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
에 따른 구체적인 안내사항은 전화교환 340,
341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가져

교회는 지난 3월24일(금) 오후8시 본당

에서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기도회는 김학진목사 사회로 진행,
메시아 수난의 묵상(사 53:1-6), 이웅선장
로의 기도, 장로가족찬양대의 찬양이 있는
후 이종윤위임목사가 「십자가」란 제목의
설교를 했다.

1부 예배후 계속해서 이양우목사 인도로
기도회를 오후10시까지 가졌다.

한영철목사 귀국

칠레연합교회도 사면

칠레로 파송되었던 한영철목사가 지난
주간 사정상 귀국했다.

한목사는 칠레파송당시 본교회 부목사직
을 사임했으며, 파송지인 칠레연합교회(유
재일목사 시무)에도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
로 알려졌다.

본교회 세계선교회는 한목사가 귀국하므
로 인해 선교사직은 자동적으로 상실되었
다고 말하고, 아울러 본교회 부목사직도 이
미 칠레파송당시 사직서가 당회에서 수리
되었으므로 본교회와는 무관함을 밝혔다.

그동안 한목사님의 선교사역을 위한 기
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교회
는 감사하고 있다.



▲ 지난 3월 23일 본교회 갈릴리움에서 개최된 남북통일과 북한선교 세미나 광경.



▲ 송파구 가락동 일신여상 앞에 걸려진 고등부주최 초청전도대회 프랑카드

카메라 초점

24개 교회학교 부장 등 특별기도

고등부가 주관하는 「미래세대의 지도자
초청 전도대회」 개최를 앞두고 교육위원회
산하 24개 부서 부장(장로)들이 4월1일 오
후6시부터 충현기도원에서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동 기도회에서 성공적인 전도대회가 될
수 있도록 통성기도와 합심기도가 있었다.

여전도회협의회 매월 특별강좌 개최

여전도회 협의회는 매월 특별 신앙
강좌를 개최기로 하고 첫번째 특강
은 4월 7일 갖기로 했다. 강사 이
종윤 목사

「주간충현」 배포위원 임명 예배위원회 각부 안내 당면

매주 발행되는 「주간충현」의 원활한 배
포를 위하여 배포위원을 임명했다.

배포위원은 매주일 예배(1~4부) 안내위
원(권사·집사)이며, 예배가 끝난 후 직접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안내당면은 매
배 시작 전에는 열체 배부하지 않도록 하고,
설교 이후 각출입구 배포대에 「주간충현」
을 운반해 놓고 안내장로 지시하에 한 사람
도 빠짐없이 배포하기로 했다.

사 고

「주간충현」은 적조높고 품위있는 신문으로 발행키 위해 4월부터는
편집의 쇄신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용으
로 원고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독자의 광장

성도 여러분들께서 평소애 쓰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시나 수필, 또는 동화, 동
요로 그리고 논단이나 제언형태로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써서 제출해 주십시
오.

우리기관 소개

각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행사, 그리고 아름
다운 내용들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정성껏 취급해 드리겠습니다.(200×7매)

신앙간증문

체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영접사건을 사실적으로 기술해서 보내주십시오.
(200×8매)

전도활동 체험기

구원의 감격에 조금이나마 기쁨을 나누기 위해 본인이 직접 전도활동한 내용
을 방법과 함께 작성해 보내주십시오.(200×9매)

원고마감 / 매 주일 오후6시까지

보내실곳 / 소석관 115호 「주간충현」 신문사 편집국

투고자 대우 / 채택된 원고는 본 「주간충현」에 게재함과 동시에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지 상 강 단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본문 / 고전 15장 1~20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진리의 종교」, 「실천적 종교」 등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그 중에 주님의 부활은 기독교를 타 종교와 완전히 구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요, 영원한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①주님의 부활은 진리가 거짓과 죄악을 이긴 승리의 부활입니다.

거짓과 시기, 폭력과 권력이 야합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요 14:6)을 못박아 죽였으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시므로, 진리는 반드시 거짓과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먹구름이 잠시 태양을 가리울 때면, 태양이 없어진것 같이 캄캄해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구름이 사라지면 밝은 태양이 다시 빛나는 것과 같이 빛이 어둠을 이긴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②주님의 부활은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 승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요, 빛이시요, 생명이

십니다.(요 1:1~5) 그러므로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이, 사망이 결코 가둘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부활하시므로 인간의 가장 무서운 원수인 사망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게 정복된 것이 됩니다.

③또한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신 승리의 부활이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후 큰 잔치를 베풀었는지 모르나, 장사지낸 지 3일만에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므로 사탄의 계교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취의 부활」

③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구원완성의 성취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요 19:30) 하신 주님의 선언은 그의 부활로 확정되었고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안식일」(창조의 기념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주일, 재창조 기념일, 주님의 부활로 인한 구원 완성일)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보증의 부활」입니다.

①우리 주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됨이 보증되고 확정된 사건



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써 다시 살아나셨습니다.(고전 15:20)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열리면 계속하여 다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엡 1:22~23), 그의 몸된 교회와 그의 지체인 성도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 성취, 보증의 부활 이땅에 민족부활의 새생명운동 전개를!

입니다.

①주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성취의 부활입니다.(겔 37:1~14, 호 6:2, 욥 19:25~27)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고전 15:3~4)

②또 우리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11:25~26), 또 자신이 온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약속을 그의 부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요 10:17, 마 16:21)

이며, 주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 자체이신 이 증거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결코 무덤에 가둘 수 없습니다.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②주님의 부활은 복음을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위한 헌신과 충성,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선상에 있었던 진실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과 허위를 위해 헌신하고 핍박받고, 순교까지 하겠습니까?

③주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

정예, 박복동, 노점래, 강현자, 조숙영, 장진옥, 유근임, 홍양례, 윤희경, 홍유순, 박습식, 나옥녀.

교회학교 단신

※유년부(부장/윤성철장로)는 여부감 김순남집사 후임으로 강순희(현고등부교사) 집사를 당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했다.

※소년부(부장/노문환장로)는 찬양대 반주자로 김진애(한양음대 작곡과) 교사를 임명했다.

※영아부(부장/차신득장로)는 예배장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 신앙의 원동력이 되며, 그리고 기독교의 우월성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모든 역경과 고난, 죽음까지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기쁜 소식을 이 민족의 가슴에 증거하고 심어주어, 어둠과 좌절, 갈등과 죄악, 절망의 먹구름이 뒤덮여 있는 이 땅위에 「민족부활의 새생명 운동」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 무(목사·10교구지도·전도위원회지도)

를 소석관 109호에서 본당 지하 아멘홀로 이전했다.

※중등부(부장/임필성장로) 찬양대 지휘자로 박기범(충신대 종교음악과)교사를 임명했다.

※소년부(부장/노문환장로) 찬양대 수련회를 오는 4월4~5일 충현기도원에서 갖기로 했다.

※교육위원회는 교회학교 각부에서 사용할 시청각자료(슬라이드 필름, 비디오테이프 등)를 기독교방송 시청각 교재실에서 대출하여 사용키 위해 C.B.S. 교재실 회원 가입

교회학교 교사56명 추가임명

교육위 당회승인 받고 유치부 등 4개 부서에

교육위원회(위원장/오태희장로)는 89년도 교사 56명을 당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임명했다.

각부서별 임명된 교사는 다음과 같다.

▲유치부/이미영, 김혜경, 전성자, 이순옥, 김영기, 이진석, ▲유년부/마미경, 신광철, 신귀옥, 김정운, 이미리, 안수정, 양영희,

함미자, 조성수, 이경숙, 장원옥, ▲초등부/이세남, 함운자, 정금연, 김연식, 서인경, ▲장년2부/문광석, 황종남, 김숙희, ▲에바다부/이정훈, 김용희, 전혁진, 박정원, 이상범, 남재중, 이호영, 한문숙, 성미경, 안혜진, 김경숙, 홍종란, 유재춘, ▲탁아부/권필순, 유영자, 김정순, 박명석, 최규옥, 이점자, 이

미래세계의 지도자초청

전도대회



일시 / 1989년 4월 9일(주일) 오후 1시

장소 / 충현교회 본당

강사 / 이종윤 목사

초청연예인 / 강석우, 이혜숙(탈렌트)

한소리 남성보컬

이은수, 전혜영

주최 / 충현교회 교육위원회 주관 / 교회학교 고등부

교회당 주변을 나무로 푸르게 하자

성도들의 적극참여로 좋은나무 헌수 계속접수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교회는 오는 4월 5일 식목일에 교회당 주변 녹지공원 조성 및 환경미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20일에 교회당 헌당은 끝났으나, 겨울철관계로 못다한 잔디조성, 수목배치, 교회당주변 공지의 조경사업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환경미관상 저해요소가 되어 왔는데, 이번 성도들의 좋은나무 헌수로 교회당주변이 푸른동산이 되었으면 한다.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위한”(아가서 6장10절)처럼 표현하는 우리 충현예배당은 이번 기회에 성도들의 정성어린 헌수로 인해 교회당 주변이 더욱 푸르고 깨끗하게 가꾸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그동안 백영희권사를 비롯하여 박영엽, 최란수, 유정수권사, 그리고 안경식노인이 헌수해 주었고, 김연근집사(서울여행사 부사장)가 느티나무 1그루(1백만원 상당)를 헌수해왔으며, 계속하여 참여하실 성도는 다음 나무종류 가운데 1그루씩 헌수해도 좋고, 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지불해도 무방하다. 4월4일까지 교회사무국에서 접수하며 기증자는 「주간충현」에 게재한다.

헌수나무 종류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1그루 나무구입 금액임).

①죽목(30만원: 4그루), ②단풍나무(7만원: 28그루), ③오염송(50만원: 10그루), ④

목련(20만원: 2그루), ⑤조형소나무(1백만원: 19그루), ⑥느티나무(1백만원: 1그루), ⑦눈주목(2만원: 200그루), ⑧선향(9만원: 13그루), ⑨회양목(1천5백원: 2,560그루), ⑩백철쭉(2천원: 1,670그루), ⑪점철쭉(2천원: 550그루), ⑫잔디(6천원: 96평), ⑬장미

(2천원: 150그루), ⑭자산홍(1천5백원: 500그루), ⑮명지나무(2천5백원: 100그루), ⑯6줄장미(3천5백원: 135그루), ⑰담쟁이덩굴(5백원: 1,000그루), ⑱줄사철(2천원: 100그루)



▲ 외국인 초청집회에 참석하면서 각국 유학생들이 등록처에 사진하고 있다.

외국인유학생 초청집회 성황

25개 나라에서 1백50명 참석

예배위원회(위원장/김기정 장로) 산하 영어예배부는 지난 3월28일 오후7시 본교회 만나식당에서 외국인 유학생 초청집회를 개최했다.

한국에서 유학생활동을 하는 유학생들과 영어예배에 참여하는 외국인 및 교포학생 등 25개국에서 1백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테리파이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예배에서 이종윤목사는 본문 행 16장 6~1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2부 집회를 가졌다.

충현훈련복 판매 1벌에 8천원씩

5월 12일 충현올림픽을 앞두고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날 착용할 충현훈련복을 성도들에게 판매하기로 했다.

충현훈련복은 1벌에 8천원이며, 구입처는 교육위원회(소석관 103호)사무실이다.

본교회가 마련한 부속식 저녁으로 성도의 교제를 가지면서 시온성가대의 특별찬양, 그리고 독창과 바이올린 연주 등으로 특별시간을 가졌다.

피부색, 언어와 풍습, 습관 등 다양한 그들이었지만 주님의 은총 아래 한 마음이 되어 자기소개, 자기나라 음악을 부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본교회 영어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갈릴리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인도는 「테리파이」협동목사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70 인 전도요원 제11기 훈련

4월20일~6월8일까지 전도위주관

전도위원회(위원장/윤종성 장로)는 70인 전도요원 제11기 훈련을 오는 4월20일부터 6월8일까지(매주 목요일 오후2시~4시) 본

당1층 베다니홀에서 갖기로 했다.

훈련참가 대상은 교구일꾼 및 평교인으로서 각 교구에서 5명 이상 추천받아 실시

각부서별 위원, 임원구성

충현올림픽조직위원회

충현올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오진국 장로)는 올림픽 주제찬송으로 388장(마귀들과 싸울지라)로 정했다.

▲집행위원회/노광현, 김천채, 윤성철, 이종국, 노문환, 원사회장단 5명, 남·여전도회 협의회회장 5명, ▲경기진행부 부장/박승준, 차장/박상준, 임원/김승배, 김현식, 전승훈, ▲4팀 팀장/장로, 차장/집사, 임원/교구위원회에서 선정, ▲동원부 부장/각교구장, 임원/남·여전도회 지회장, ▲시

설관리부 부장/오정현, 차장/김신(음향), 김성진(전기), 임원/박유화(비디오), 유정순(녹음), 시설차장/김인규, 한종택, 유성남, 홍순형, 박홍남, 김진호(기사), 하상규(배선), ▲심판부 부장/강은원, 차장/김정태, 임원/박문태, 나희주, 권명옥, 김시주, 이실호, 체육인차장/이종섭, 위원/정상수, 오 규, 김광호, 임복섭, 최종시, 윤해균, 김영덕, 강경의, 박근엽, 양승길, 김윤창, 장영순, 김창기, 정연돌, ▲기록부 부장/차신득, 차장/정정수, 임원/조승철, 홍성옥, 김용대, 이창희, 윤창준, 윤 정, 정인자, 허 숙, 정미숙,

허경화, ▲시상부 부장/김은호, 차장/김여순, 박영엽, 임원/박인근, 안상연, 박찬섭, 김여순, 강동화, 김용숙, 박효지, ▲전령부 부장/김재명, 차장/김점석, 임원/1. 정창원, 정영숙, 2. 김구형, 구승균, 3. 김상구, 안희정, 4. 김달현, 오순자, 5. 김진후, 진경애, 6. 김기철, 박광정, 7. 신부근, 조영혜, 8. 이계홍, 김태금, 9. 조정식, 임신영, 10. 함철주, 박천래, 11. 정재명, 윤병순, 12. 박상준, 서금자, 13. 한일연, 신기숙, 14. 석영실, 한영덕, ▲재정부 부장/임광식, 차장/박철훈, 임원/임복남, 최명환, 진홍용, 이성근, 홍시오, ▲섭외부 부장/김차생, 차장/손경수, 임

하기로 했다.

강사는 이종윤목사 외 본교회 교역자.

원/이하영, 김달용, 이정애, 이명자, 김상순, 김춘지, ▲홍보부 부장/김광신, 차장/이승철, 임원/강정선, 김종태, ▲봉사부 부장/김경철, 차장/오인근, 김중복, 임원/김태명, 유영식, 한종국, 석춘식, 차기풍, 이용열, 윤병조, 이성실, 김봉중, 박순규, 김동호, 최경복, 송영섭, 김영희, 박윤석, 유순녀, 한영숙, 김명숙, ▲의료부 부장/이종석, 차장/손철, 임원/이춘섭(한의), 임명섭(한의), 김재호(간호원), 전미령, 김진애(약사), 최정자, 김상덕, ▲차량경비부 부장/문홍구, 차장/허명호, 임원/서춘식, 추병창, 손기현, 박원화, 김은석, 김선구, 김규중, 김윤창, 차기풍, 한종구, 문광석, 김낙홍, 박호영, 이승구, 김종민, 배호남, 김영길, 김일교, 김영연, 이순득, 장영환, 이교영, 한만교, 손동기, 이홍길,

카운트다운

5월 12일 충현올림픽

광파레

표어 및 상징마크 공모

접수마감: 4월 9일(주일) 오후6시
발 표: 4월 16일 「주간충현」
제 출 처: 충현올림픽조직위원회
시 상: 당선작 1명<주석성경 및 찬송가>
가 작 1명<성경찬송가 합부>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봉사부서: 경기진행부, 심판부, 시상부, 채점기록부, 시설관리부, 차량경비부, 홍보부(사진, 비디오), 봉사부, 섭외부, 기타

※ 신청은 본 조직위원회(선교관 402호)

C · O · C 충현 올림픽조직위원회

충현올림픽 개최장소: 정신여고운동장

전화 552-8200(교환 352번)

“내일의 젊은이들 충현동산에 오르다”

고등부주관 미래세계의 지도자 초청전도대회를 개최하며

“우리의 소위가 선지 못하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를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왕하 7:9)

한국 개신교 2세기를 맞이하여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보다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 본다. 그 중에서 까지 않은 원목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더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일 때.

‘청소년이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한 도산선생이나, ‘청소년을 내게 보이라. 내가 그 나라의 장래를 말하리라’고 한 독일 제왕 「비스마르크」는 청소년의 중요성을 매우 적절히 대변하였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볼 때, 지금의 청소년들은 바로 다가올 미래 세계(사회)의 주역이며 또 개인적으로는 미래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하고도 가변적인 시기인 때문이다. 청소년이 가정뿐 아니라 학교와 사회 일반의 여러 요인들이 청소년 성장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상투적인 말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중요한 청소년기를, 기독교적 선도의 차원에서 빠르고 의미있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①받은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통해 생명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②고등부 학생들의 복음에 대한 인식과 열의를 높이고, ③전도 잠재력을 측정할 목적으로 이번 ‘충동원 전도’의 불을 당긴 것이다.

교회당 주변 8, 9학군 고등학생 대상의 전도전략 수립 전교인이 4월 9일 전도행사에 관심갖고 특별기도를!

본 교회 위임목사이신 이종운 목사님께서 기도 중 채택해 주신 <미래 세계 지도자 초청 전도대회>라는 것말이래, ①본교회 등록교인 자녀(전체 14교구 고등학생만 약 1,000명), ② 등록 후 낙심자, ③학교 또는 이웃 친구, ④친지 및 부모님 친구분 자녀, ⑤교회 주변(8·9학군) 고등학생들을 주 대상으로하여 전도 전략을 수립, 추진 중이다.

“한국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인 여기 강남에서 본 교회가 담당해야 할 임무는 실로 막중하다 하겠다.

본 교회가 강남으로 이전해 온 이후, 그동안 성전 건축으로 인하여 소홀해 왔던 교회 본연의 사명, 사업 중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는 매우 의미있고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에 잠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이번 행사의 구상과 계획의 기간이 여유롭게 못했고, 예산조차도 ‘년 예산에 산정되어 있지 않은’ 맘포스적 규모이며 믿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수용될만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고

려하지 못했다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와 위임목사님 그리고 당회가 허락을 하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지 후원하는 것은 이제 본 교회가 본연의 사명에 전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웅변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롬 1:14-16)

동 방송국에 이번 행사에 대한 보도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이번 주일에는 고등부 학

강남의 고등학생 6천명 초청하여 예수님 만날 기회 부여 청소년기를 기독교적 성도의 차원에서 바르게 성장

능력이 됨이라”(롬 1:14-16)

동 방송국에 이번 행사에 대한 보도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이번 주일에는 고등부 학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이 행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일신 여상 이사장이신 오동술 장로님과 잠실여교 교감이신 이서구 장로님께서 참석하시어 매우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협조를 약속하셨고, 그 외의 6·7명의 선생님들로부터는 전도 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학교 내의 상황, 효과적인 대응책 등의 자문을 받았다. 3월 19일 2차 보고에서는 약 3,200여명의 전도 대상자가 파악되었고, (이 숫자는 협조하는 학교의 학생수와 본교 등록 교인 자녀들 수는 제외된 것이다)

3월 20일부터 시작된 24시간 릴레이 기도는 40일 금식기도(2월 18일 시작)와 함께 행사 하루 전날인 4월 8일 종료된다.

사무국에서는 고등부 학생들의 전도에 대한 열의와 의욕을 높이기 위해 고등부 주변 벽과 게시판에 내부 홍보물을 고등부 편집부의 협조로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으며, 2월 25일에는 협원들을 총동원하여 임원실을 ‘전략 상황실’로 개편하였다. 또한 ‘40일 금식기도 현황판’과 ‘개인별 전도 대상자 현황판’을 제작 완료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무국의 더욱 중요한 임무는 4월 9일 집회 이후 참석자와 결신자들의 사후 관리에 있다. 이미 이 일해 대한 계획에 착수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반응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긍정적인 면과 아울러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 위원회에서 각 국장들의 브리핑과 또 교육 위원회 자체 회의를 통하여 당회의 허락이 떨어졌으며, 충현교회 유사 이래 처음 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미 일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물질을 쓰는 것은 당연하며, 잃어버린 생명을 얻는 것은 곧 천하를 얻는 것이니 거기에 들어갈 재물이 과연 아까울까? 하시던 위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힘을 얻었다는 한 고등부 교사는 「최고 보다는 최선을 드러내겠다」고 다짐한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매월 1회 장로님들의 기도모임이 충현 기도원에서 있는 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장로님들이 특별히 이번 행사를 위하여 기도회를 갖기 위해 4월 1일 기도회에 참석하신다고 한다.

끝으로 고등부에서 요청하는 기도 내용은 ①젊은이를 위한 목사님의 말씀, ② 무례없는 프로그램 진행과 분위기, ③당일 날씨와 안전, ④찬양 및 간증자들의 마음의 준비와 간증 내용, ⑤행사 이후의 마무리, ⑥결신자를 사후관리 문제이다.

“지혜있는 자는 굴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삶을 움튼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 12:3)

그러면 이제 지난 2월 19일 충동원 주일 발표로 시작된 이 행사의 각 국(局)별 활동 상황을 살펴보자.

먼저, 기획국에서는 2월 26일 전도주일 제침사 분배, 각 국의 업무 분담을 시작으로 대주 이를 조정·확인하고 있으며, 3월 8일, 영아부에서 있는 ‘총동원 전도를 위한 특별교사회’에서는 고등부 학생들의 학교별 분포확인과 담당 교사 배치를 완료하였다. 지난 3월 20일에는 교회 및 고등부 소개 비디오 제작을 위해 촬영에 들어갔으며 이번 주일까지 촬영을 마치고 주중 제작·편집하여 세사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당일 믿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 주보 프로그램의 구상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당일 본 예배 주보 원고가 입수되는 대로 제작 편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4월 1일과 4월 8일 본당에서 두 차례의 레허설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홍보국에서는 3월 18일 대형 프랑카드의 교회 주변 일대를 세발로 포스터(600매), 초청카드(3만매), 학교 주변에 설치할 중형 프랑카드(20개)를 3월 25일 제작 완료

생들의 전도 의욕과 참여 의식을 북돋우기 위해서 탈렌트 강석우·이혜숙을 미리 초청, 학생들의 전도를 독려할 계획이다.

홍보국의 남은 과제는 당일 특별 주보 제작, 게시판에 게시할 고등부 활동 소개 홍보물 제작, 본당 현관 프랑카드 제작 및 설치, 각 학교 주변의 홍보 포스터 및 프랑카드 부착 업무 확인 등이다.

특기할 것은 기존 전도지가 홍보 측면에서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그 대용으로 홍보용 연습장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것은 전도 효과와 홍보 효과를 겸한 것으로 학생들은 누구나 활동한 사용하게 때문에 효율성이 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구나 미리 제작된 포스터의 디자인의 단점을 보완·수정한 견본을 학생들에게 보낸 결과,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주일 나누어 줄 홍보용 연습장(2만부)의 홍보 효과는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훈련국과 전도국은 2월 28일, 10일금식 기도(자원)를 출발로 하여 3월 5일 전도 대상자 1차 보고(2,400여명)를 받았으며, 3월 12일에는 교우 중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을